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# 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**2013년 11월 18일(월) 16:30분이후**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자동차항공과 최남호 과장(2110-5631), 최수연 사무관(2110-5634), 박성민 사무관(2110-4825)

## 제8회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개최
## - 수리온에 이어 10,000lbs급 소형헬기 개발키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: 윤상직)는 11월 18일(월) 제8회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(이하 "항우심")를 개최하였음

**<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>**

- 항공우주산업개발에 관한 **기본계획 수립**과 이에 따른 **정부의 중요정책 및 각 부처간 주요 업무 조정에 관한 내용을 심의·의결**하는 기구
- **위원장**(산업부 장관), **당연직위원 6명**(기재부·미래부·국방부·국토부 차관, 국무조정실 국무차장, 방사청장), **위촉직 위원 8명**(산·학·연 전문가)으로 구성

○ 금번 항우심에서는 민수·군수헬기 연계개발 추진계획(산업부, 방사청)을 심의·의결하였으며,

○ ①고속-수직이착륙(틸트로터) 무인기 기획현황(산업부), ②차세대 중형항공기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(산업부), ③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추진계획(방사청)에 대한 각 부처의 보고가 있었음

□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은 10,000 lbs(4.5톤)급 민수헬기와 군수헬기(소형무장헬기)를 함께 개발하는 계획을 보고하고 금번 항우심에서 심의·의결하였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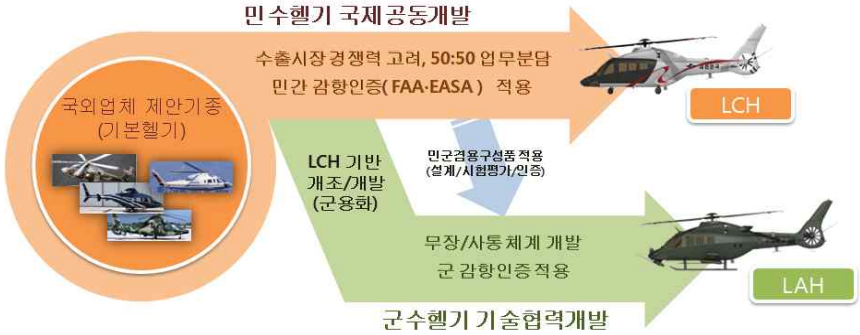
○ 이번 개발사업은 산업부, 방위사업청 등 정부부처와 국내업체 및 국외 파트너의 협력을 통하여 민수/군수 두 종류의 헬기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함

- 산업부는 민·군 겸용 구성품, 국내·외 체계업체는 민수 전용 구성품 및 체계종합 등에 투자하여 민수헬기를 先개발하고,

- 이를 바탕으로 군(방사청)에서 군용에 적합하도록 개조·활용하여 소형무장헬기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계획임

| 구 분 | 민수헬기 (LCH) | 군수헬기 (LAH) |
|---|---|---|
| 용 도 | 승객 및 화물 운송, 응급구조 등 | 對기갑작전, 항공정찰 등 |
| 중 량 | 약 10,000 lbs (4.5 톤) | |
| 특 성 | • 인원수송, 비행안전성 우선<br>• 저진동, 저소음, 안락성 추구 | • 무장, 사격통제장비 탑재<br>• 방탄강화 등 생존성 향상 |

- 또한 민수헬기의 수출 산업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국제공인 인증체계를 구축 예정



○ 정부는 이러한 개발계획이 내년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민수헬기는 2020년, 소형무장헬기는 2022년에 개발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

○ 금번에 개발하고자 하는 소형급 헬기는 응급의료, 해상감시, 승객운송 등 범용 민수공공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 중량으로 시장성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보이며, 지난해 군 기동형으로 개발완료한 중형급* 헬기와 더불어 다양한 시장에 대응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

* 수리온 : 20,000lbs급의 중형헬기로, 지난 7년간('06～'12년) 정부와 민간에서 개발하여 현재 군용 기동헬기로 양산·활용하고 있음

- 또한 소형무장헬기의 개발·공급을 통해 현재 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노후화된 헬기(500MD, AH1S)를 교체하여 우리 군의 전력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할 예정

□ 이와 함께 산업부는 '고속-수직이착륙(틸트로터) 무인기 기획 현황'을 보고함

○ 틸트로터 무인기는 헬기와 프로펠러 비행기의 장점을 결합, 수직이착륙과 고속비행이 가능한 신개념 항공기로 전 세계적으로 개발 능력을 보유한 국가는 극소수

* 전세계적으로 미국 Bell Helicopter社에서 '52년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현재 V-22 Osprey 항공기가 유일하게 양산('05년 해병대 배치)

○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에 무인기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'스마트 무인기'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시작, 2011년 비행시연을 한 바 있으며,



- 특히, 국내 수십여 개의 대·중소기업, 대학 및 연구소가 개발에 함께 참여함으로써, 로터 및 드라이브 시스템을 국제공동개발하고 자동비행제어시스템 등 대부분의 품목을 국산화하는데 성공함





< 스마트 무인기 회전익 비행 모드 : 수직 이·착륙>




< 스마트 무인기 고정익 비행 모드 : 수평 비행>

○ 산업부는 이렇게 확보한 기술을 바탕으로 민·군의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 운용할 수 있는 상용 수준의 무인기 개발을 기획 중

- 내년에 사전 기획 연구 및 예비타당성 검토 등의 예산확보 절차를 거쳐 약 10년간('15~'24)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, 무인기 시장 선점에 필요한 선도 기술 및 항공 임베디드 시스템 기술 확보도 병행할 예정임

□ 기타 민간 기업 주도로 추진해 온 중형항공기와 군에서 검토 중인 한국형전투기(보라매, KF-X) 개발 사업의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

□ 한편,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민·군수헬기개발사업에 대한 관련기관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면서, 아울러 무인항공기가 우리나라의 강점인 IT와 융합하여 향후 세계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임을 강조함



○ 앞으로 산업부는 항공기 기체와 항공 임베디드 시스템 기술 확보를 위해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히며,

○ 국방부·방위사업청 등 틸트로터 무인기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수요부처에 조기 수요 반영 등 협조를 당부함.

* 동 보도자료는 심의회 이후 내용이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. 기사 작성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